

Fund Facts

<b>투자 목적</b>	자산의 90%이상을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중 고배당 종목 위주로 투자하여 주가 상승 이익과 배당이익을 함께 추구합니다. 보조전략으로 커버드콜전략의 실행을 통한 콜옵션 매도 수입의 축적으로 추가하락 위험을 일부 헤지하면서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b>운용개시일</b>	2005-12-07
<b>펀드 규모</b>	2,031 억원
<b>총보수</b>	□A1:1%선취+연1.60% □C1:연2.20% □C2:연2.075% □C3:연1.95% □C4:연1.825% □C5:연1.70% □C-I:연0.75%
<b>환매수수료</b>	A1-없음 / C1,C2,C3,C4,C5,CI-90일미만시, 이익금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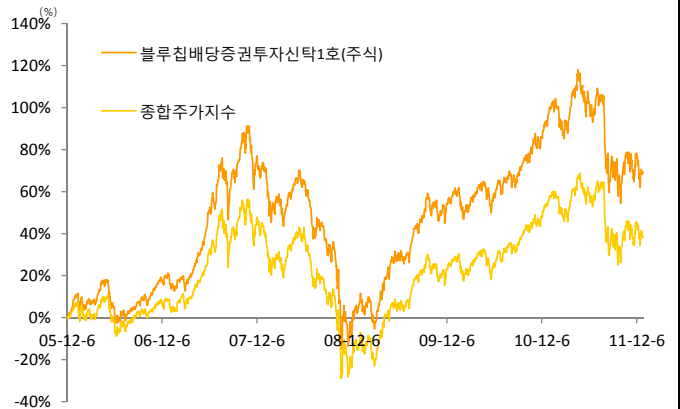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블루칩배당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57%	1.04%	-15.92%	-13.85%	69.20%
종합주가지수	-1.18%	3.17%	-13.09%	-10.98%	38.20%
초과수익률	-0.39%	-2.13%	-2.83%	-2.86%	30.99%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A1 기준임.

수익률 추이

(2005.12.06~2011.12.30)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2월 한 달간 펀드수익률은 -1.57%였으며, 동 기간 종합주가지수 변동률은 -1.18%를 기록했습니다. 비교지수 대비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였던 것은 업종별로 전기전자, 건설, 음식료, 전기가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던 가운데, 동 업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비중확대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 비중확대가 되어 있던 인터넷, 일부 화학, 은행 종목도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현대해상, 제일모직, 삼성물산, 대상, 무림P&P, 현대그린푸드 등이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던 반면, NHN, 다음, GS, 넥센타이어, 카프로, 하나금융지주, 현대위아, SK텔레콤 등은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황

12월 주식시장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호조 지속과 중국의 건축 완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월 초반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ECB(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프로그램 시작 등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되어 주요 상품가격이 하락하고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화되었으며 김경일 사망에 따른 대북 리스크에도 일시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주식자산에서 채권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지속적으로 업종내 경쟁력 강화에 따른 삼성전자 중심의 전기전자 업종과 종이목재, 건설, 음식료, 전기가스, 증권, 의약품 등 저배타 내수업종 중심으로 상대 성과가 양호하였으며, 은행, 운수장비, 운수창고, 금융, 화학, 기계, 철강 등 소재 및 산업재 업종과 연말 배당락에 따른 통신업종이 부진하였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펀드에서 현물주식은 97% 내외수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보유분의 80% 내외 수준은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 구성하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중 고배당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소형 고배당종목 중에서 엄선한 마이더스고배당주로 구성됩니다.

①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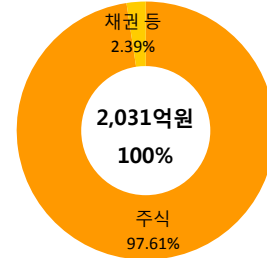
블루칩 배당포트폴리오 중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NHN,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GS 등의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지난 달은 하이닉스, 호남석유, 대우조선해양, 삼성물산, 현대건설, SK텔레콤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한화케미칼, posco,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② 마이더스고배당주

마이더스고배당주 중에는 대상, 무림P&P, 현대그린푸드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카프로, 넥센타이어 등의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지난달은 원익IPS, 한세실업, 와이izen터테인먼트, 파트론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LG상사, 씨젠, 인터플렉스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11.12.30 기준]



상위보유종목

[2011.10.31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59.84%)

- |            |            |
|------------|------------|
| 1. 삼성전자    | 11. 현대중공업  |
| 2. 기아차     | 12. 엔씨소프트  |
| 3. 현대차     | 13. 삼성SDI  |
| 4. POSCO   | 14. 하나금융지주 |
| 5. 현대모비스   | 15. 한화케미칼  |
| 6. LG화학    | 16. 다음     |
| 7. 하이닉스    | 17. KT     |
| 8. GS      | 18. LG전자   |
| 9. 삼성엔지니어링 | 19. SK텔레콤  |
| 10. 금호석유   | 20. LG상사   |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